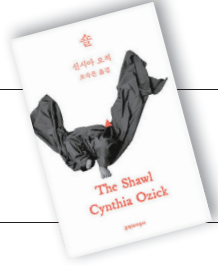


존재의 의미·인간 조건의 무게를 담아내

강제수용소로 향하는 행렬과 참혹한 삶과 죽음



솔

신시아 오직 지음, 오숙은 옮김, 문학과 지성사, 1만 원

‘오렌지 상’ 최다 수상 작가 신시아 오직의 대표작 ‘솔’이 국내 초역됐다.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사건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은 인간의 존재 의미, 인간 조건의 무게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이 책에 실린 ‘솔’과 ‘로사’는 1980년과 1983년 미국 뉴욕커 지에 각각 발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편 ‘솔’은 엥겔소설에 가까울 만큼 매우 짧지만 그만큼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특히 하계도 홀로코스트를 다룬 작품임에도 ‘나치’나 ‘수용소’ 같은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그 대신 ‘코트에 꿰매어 단 별’이라든가 ‘아리아인’ 같은 단어에서 이 작품이 강제수용소로 향하는 행렬과 수용소에서 의 참혹한 삶과 죽음을 다룬다.

경이 된 시대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를 다루는 일종의 후일담으로 ‘솔’이 주는 강렬한 인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비대칭성이 오히려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담보하는 요인이 된다. ‘솔’에서 폴란드 출신 유대인 로사 루블린은 강제수용소 경비병이 어린 딸을 살해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30여 년 후 그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호텔에서 “미친 여자이자 과거의 쓰레기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 두 작품의 중심에는 ‘솔’이 있다. 그것은 굶주린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솔, 뜻하지 않게 그 아이를 파멸시키는 솔, 나아가 마법처럼 그 아이를 되살리는 솔이다. 시적인 문체로 간결하게, 그러나 강렬하게 묘사되고 있는 작품이다.

‘베셀’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 신작 韓 상륙

승패 가르기보다 서로의 손 놓지 않을 것 다짐



위너

프레드릭 베크만 지음, 이은선 지음, 다산책방, 1만8000원

스웨덴 북부의 두 작은 마을 베어타운과 헤드. 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거라곤 숲과 호수뿐인 데다, 인구와 일자리는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지는 곳이다. 여러모로 쇠락해 가는 마을이지만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다름이 아닌 스포츠, 그것도 아이스하키다. 두 마을의 주민은 아이스하키에 온 희망을 걸었다. 어른들은 아이스하키 경기 중계를 반복해서 보고 아이들은 얼음이 얼면 삼삼오오 모여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한다. 그중 실력이 뛰어난 아이는 골프로 선수가가 되어 마을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 그리고 베어타운과 헤드에서는 서로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다. 모든 경기에서 이겨도 서로와의 경기에서 지면 실패한 시즌으로 여긴다. 상대 마을에 패배를 안겨주고 지옥을 맛

보여야 자신의 마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상대방을 향한 증오는 두 마을에 몰아닥친 폭풍과 함께 막을 내린다. 이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탈출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뜨겁게 화해한다. 다투는 대신 같이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승패를 가르기보다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제 베어타운과 헤드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두 마을이 모두 승자, 곧 소설의 제목인 ‘위너’다. 저자 프레드릭 베크만은 대표작 ‘오베라는 남자’ ‘불안한 사람들’에서 보여주었던 감동과 웃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위너’에서 때로는 어둡게, 때로는 극적으로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깊은 감정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테일러 스위프트 엘비스 기록 깼다

빌보드 '최장기' 68주 1위 그룹 최장은 비틀스 13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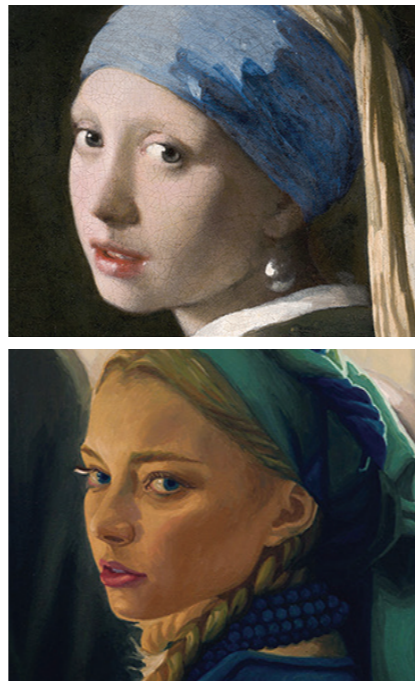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로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치고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가장 오래 1위에 머무른 솔로 가수가 됐다. 1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와 빌보드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1월6일자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앨범 ‘1989(테일러스 버전)’로 5번째 1위를 기록해 지금까지 총 68주 동안 이 차트 정상 기록을 67주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1956년부터 2002년까지 10개 앨범으로 기록한 기존 솔로 가수 최장 기록인 67주를 넘어선 것이다. 스위프트는 그룹과 개인 통틀어서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에 이어 두 번째 최장 기록을 갖게 됐다. 비틀스는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총 19장의 앨범으로 132주간 이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스위프트는 2008~2009년 11주간 1위에 머무

른 앨범 ‘피어리스(Fearless)’를 시작으로 ‘스피크 나우(Speak Now)’, ‘레드(Red)’, ‘레퍼테이션(Reputation)’, ‘러버(Lover)’ 등으로 약 15년에 걸쳐 13장 앨범을 정상에 올렸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2006년 데뷔 이후 20여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세계적인 팝스타로 자리 잡은 싱어송라이터다.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스위프트의 순회공연 ‘에라스투어’는 미국과 남미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위프트가 공연을 여는 도시마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발생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3년 ‘올해의 인물’에 스위프트를 선정했다. 한편 이날 ‘빌보드 200’ 차트에서는 마이클 부블레의 캐럴 앨범인 ‘크리스마스’가 스위프트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니키 미나즈의 ‘핑크 프라이데이’, 넷 킹콜의 ‘더 크리스마스 송’ 등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영화 속 한복판에 들어온 듯... 영화 ‘립세의 사계’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위)와 영화 '립세의 사계' 속 한 장면. 연합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유화로 구성 19~20세기 초 유명 그림 패러디

2017년 개봉한 영화 ‘더빙 빈센트’는 스토리보다 독특한 형식으로 영화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이다. 도로타 코비엘라-휴 웰치먼 감독은 다시 한번 손잡고 새 유화 애니메이션 ‘립세의 사계’를 내놨다. 이번에는 고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화가 30인의 명작을 스크린에 펼쳐놓는다. 영화가 전개되는 동안 19세기 말~20세기 초 그림을 패러디한 장면이 중간중간 나와 반가움을 안긴다. 전작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유화로 구성된 이 영화는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여기에 그림을 덧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1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투입됐고 완성하기까지 총 25만 시간이 소요됐다. 스토리는 19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브와디스와프 레이몬트의 ‘농민’을 원작으로 했다. 주인공은 폴란드의 작은 마을 ‘립세’에 사는 소녀 ‘야그라’다. 립세 최고 미인인 그에게는 늘 젊은 남자들이 따라다닌다. 하지만 야그라의 어머니는 “사랑은 없 어지지만, 땅은 남는다”며 손주를 줄줄이 본 홀아비 부농 ‘보리나’에게 딸을 시집보낸다.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된다. 야그라는 결혼 전부터 보리나의 아들 ‘안테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야그라의 삶은 당연히 불행의 연속이다.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걸쳐도

좀처럼 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졸지에 연적이 되어 버린 보리나와 안테크 부자는 갈등을 거듭하다 서로 주먹질까지 한다. 이 결혼으로 행복해진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다. 100년 전 소설을 바탕으로 한 탓인지 이야기는 21세기 관객들의 공감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영상미만큼은 경탄을 자아낸다. 제목처럼 립세의 네 계절을 담은 풍경과 철이 바뀌는 순간의 묘사는 명화 속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만 인물 표현 방식이 실사영화에 가까워 ‘더빙 빈센트’만큼 신비하고 몽환적인 느낌은 덜하다. 폴란드 전통 음악과 노래, 춤을 보는 재미도 있다. 야그라가 마을 남자와 번갈아가며 쌍으로 춤을 추는 역동적인 장면은 꽤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하다.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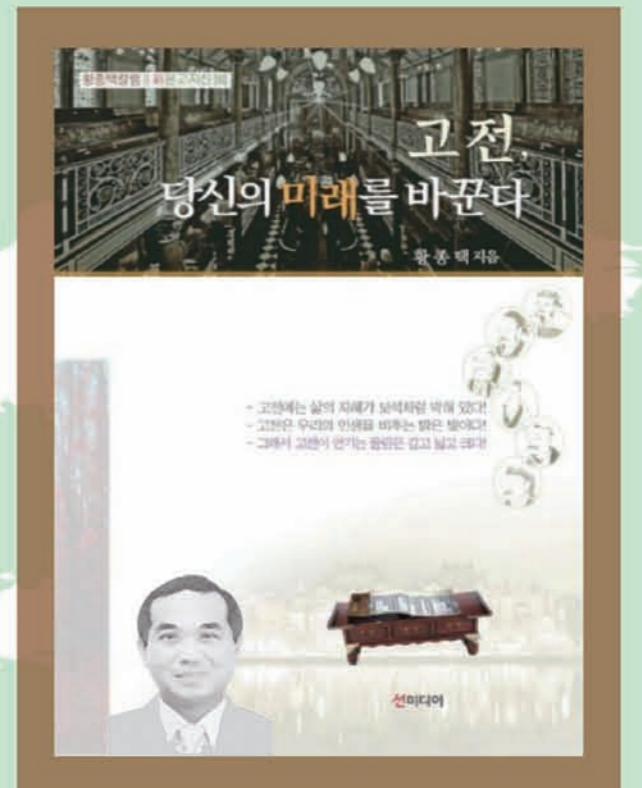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治人治世)의 해법

고전에는 삶의 지혜가 보석처럼 박혀 있다!
고전은 인생을 비추는 밝은 빛이다!
그래서 고전이 안기는 울림은 깊고 넓고 크다.

“총체적 도덕성 상실의 시대, 고전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들여다 보고 해법을 제시하다!”

고전에는 오랜 역사성과 더불어 세상을 관조함에 심오한 깊이가 있다. 고전은 고금을 관통하는 고귀한 진리이며, 치인치세(治人治世)의 도와 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만상을 오롯이 품고 있다. 고전은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는 지혜의 빛이다.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는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인 저자가 날카로운 기자적 시선으로 들여다 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통해 그에 걸맞은 고전의 경구와 지혜를 현 시대인들에게 맞게 해석해 놓은 글 모음이다.



황종택 지음 · 선미디어
값 14,000원